



초등 국어 A

() 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19]

떡 그릇 잡기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이 한 가득 담겨있는 떡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혼자 먹으려고 두꺼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 그릇을 산꼭대기에서 굴린 후 쫓아가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기로 할까?”

두꺼비는 자기가 질 것 같아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본 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기를 하자.”

둘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떡 그릇을 힘껏 굴렸습니다. 떡 그릇은 산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호랑이는 떡 그릇을 쫓아갔습니다. 떡 그릇이 굴러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떡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떡 그릇만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이 모습을 본 두꺼비는 떨어진 떡을 집어 먹으면서 내려왔습니다.

18. 이 글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두꺼비가 떨어진 떡을 먹었다.
- ② 호랑이와 두꺼비가 떡을 발견했다.
- ③ 호랑이는 떡 그릇을 산 아래로 굴렸다.
- ④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 그릇을 산꼭대기로 가져갔다.

19. 호랑이가 산꼭대기에서 떡 그릇을 굴리자고 말한 이유는 어느 것입니까?
()

- ① 그릇을 가지려고
- ② 떡을 혼자 먹고 싶어서
- ③ 두꺼비에게 떡을 모두 주려고
- ④ 누가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지 알아보려고

20. 밑줄 친 부분처럼 태도나 모양, 행동을 표현하는 말 중 빈칸에 어울리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거북이가 엇금엇금 기어갑니다.

공이 () 굴러갔습니다.

- ① 데굴데굴
- ② 뽀족뽀족
- ③ 방긋방긋
- ④ 깡충깡충

1. <예(례)> 안에 있는 낱자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어느 것입니까?
()

<예(례)>

바, 나, 리

- ① 별
- ② 발
- ③ 벌
- ④ 불

2. <보기>처럼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정확하게 쓰시오.

<보 기>

→

강	아	지
---	---	---

→

--	--	--

3.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고구마가 다 익었어?

- ① [이겨써]
- ② [익어써]
- ③ [익겨써]
- ④ [이겨서]

4.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하늘은 푸르고 넛물은 말가요.

()

5. 밑줄 친 낱말이 바르게 쓰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나는 어젯밤에 꾸를 꾸었어요.
- ② 말은 당그를 좋아하지요?
- ③ 운동장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 ④ 동생은 빨간색 오슬 입었어요.

6.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1) .

(2) .

- ㉠ 닭
- ㉡ 닭
- ㉢ 앓다
- ㉣ 안다

7.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감기약이 □ .
• 글씨를 □ .
• 모자를 □ .

- ① 먹다 ② 사다
③ 쓰다 ④ 잡다

8. □ 안에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동생이 엎어달라고 울었습니다.
□ 나는 동생을 엎어주었습니다.

- ① 그러나 ② 그래서
③ 왜냐하면 ④ 그렇지만

9. <예(례)>와 같이 듣는 사람에게 맞게 괄호 안의 두 낱말 중
에서 알맞은 것에 ○표 하시오.

— <예(례)> —
어머니! (생일 / 생신)을
축하드려요!

- (1) 할머니! (밥 / 진지) 잡주세요.
(2) 선생님, (내 / 제)가 하겠습니다.

10.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친구가 () 구두를 신었어요.

- ① 노란색 ② 엄마가
③ 신발을 ④ 벗었어요

11. 그림의 내용에 알맞게 띄어쓰기를 한 문장은 어느 것입
니까? ()



- ① 아이가아파요. ② 아! 이가 아파요.
③ 아이 가 아파요. ④ 아이가 아 파요.

12.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

영철이가 책__ 읽었습니다.

- ① 과 ② 이
③ 의 ④ 을

13. 그림의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시오.



이 강아지는 털이 꼬부라지고 곱슬곱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꼬부리라고 지었습니다.
꼬부리의 두 ()는 얼굴보다 깁니다.
꼬부리의 눈은 크고 동그랗습니다.

14. 그림의 빈 말풍선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고맙습니다. ② 미안합니다.
③ 괜찮습니다. ④ 반갑습니다.

15. 물건을 빌려 준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빌려 주니 고맙다.
② 어디 한번 볼까?
③ 이것을 써도 됩니다.
④ 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16. 사자가 동물들을 잡아먹지 못한 이유는 어느 것입니까?
()

옛날 어느 들판에 토끼, 다람쥐, 원숭이가 살고 있
었어요. 이 세 동물들은 무척 사이가 좋았어요. 사나
운 사자 한 마리가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늘 기회
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 마리는 언제나 함께
다니면서 서로서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 동물
들을 쉽게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 ① 토끼가 사자의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② 다람쥐가 작은 구멍 속으로 숨었기 때문에
③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④ 세 동물이 언제나 함께 다니면서 서로서로 도왔기
때문에

17. 종민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짜장 짬뽕 탕수육
“왕, 거지, 왕, 거지, ……”
종민이가 소변기 앞에서 서서 지퍼를 내리고 있을
때, 덩치가 제법 큰 아이가 화장실 소변기를 향하여
소리치며 왕이라고 정한 자리에 가서 셉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눈치로 알았는지 빈자리에는 서
지 않습니다.
종민이는 오줌을 누다 말고 어안이 병병합니다. 종
민이만 거지 자리에서 오줌을 눕니다.
“거지래요, 거지래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종민이는 눈물까지 글썽입니
다. 이사 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들의 얼굴이 하
나둘 스쳐 지나갑니다.

- ① 덩치 큰 친구가 부럽다.
② 소변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③ 전학 오기 전 친구들이 그림다.
④ 나도 “왕, 거지”라고 외쳐보고 싶다.